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본격 'START'

16일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 불사 시작 선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1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연꽃의 맑은 향기가 연못을 정화하듯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정화하는 금향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한국의 불교문화를 널리 선양하게 되고, 개인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연이 되고 세계는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전법도장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모연은 벽돌 하나가 모여 전당이 되고, 기와 한 장이 모여 큰 전각이 되듯이 불자는 마땅히 서로서로 권선하고 모연에 동참하여 조계성역을 이뤄내자"고 사부대중에게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

원로·본사 주지 등 500명 참석
자승 스님 "힘찬 발걸음 시작"

중앙기관 강남 포교원 이전 등

총본산 성역화 불사 계획 발표

한마음선원 5억 원 기금 약속



이날 행사에서는 성역화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모연 약정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도 5억원의 모연을 약속했다. 사진은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약정을 체결하는 모습.

역화 불사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자승 스님은 "이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선언한다"면서 "총본산 성역화는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을 던졌던 호국불교와 정화불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화 불사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총본산이 성역화 됨으로써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며 광화문, 경복궁, 북촌,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이라며 "10.27법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정화기념관을 건립해 불교 정화불사의 의지를 되

세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수탉 타 장자"라면서 "여러분의 원력과 발심이 라면 이 대작불사는 반드시 원만 회향할 것"이라며 불사 참여를 독려했다.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은 "조계사를 한국불교의 총본산에 걸맞는 역사문화사찰로 성역화하는 이번 불사는 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뜻깊은 대작불사"라고 강조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과 조계사 등을 잇는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벨트가 완성돼 한국 전통문화 발전에 큰 도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이날 모연의 밤 행사에서는 총본산성역화불사 총도감 지현 스님이 불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 불사 회향은 2025년 12월에 이뤄지며 1차 부지들을 매입해 2017년 1월 기공식을 통해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사 일대의 혁신이 이뤄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10.27법년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체결해 역사문화지구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게 된다.

이에 1단계 사업으로 10·27법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10·27법년기념관' 2개동을 건립한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

는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불자는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과 아카데미,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전통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3단계 사업으로는 봉은사에 호국불교기념관 건립하는 것이다. 이는 종단 중무행정 중심인 총무원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불교중앙박물관, 중앙신도회, 포교신행단체들이 입주해 본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호국불교기념관은 전통건축양식을 도입해 건립되며, 향후 중앙총무기관 협의회와 공청회 원로회의·종정 스님 보고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약정... 모연 활발

이날 행사에서는 성역화 불사 기금 모연도 이어졌다. 조계사는 모연 약정금 100억 원 중 16억 5000만원을,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약정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납부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3억원을,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8억원을,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5억원을, 봉은사는 30억원을, 한마음선원은 5억원을 각각 약정했다.

이밖에도 종정 진제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 등이 금일봉을, 일선 사찰과 스님, 포교단체 등도 불사금을 약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7억 여원이 모연돼 현재(19일) 118억여원의 기금이 약정 모연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14일 가을학술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이 가을 학술세미나를 열고 불교상담의 실제적 적용을 진단했다. 신임 원장 도성 스님의 취임식과 더불어 상담개발원의 새 원년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성, 이하 상담개발원)은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 가을 학술세미나 및 상담개발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대행 송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 스님, (사)천수천안 이사장 대오 스님, 광명회 포교사단장, 이근후 상담개발원 초대원장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상담의 실제적 활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윤호균 가톨릭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기초강연을 맡았다. 윤 교수는 불교적 성찰과 상담의 특성을 접목해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 존재에 대해 각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가능성·능력·성품 등 알아차리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보살이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의 미망을 깨치려 애쓰듯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의지를 믿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믿음, 수용, 공감, 깨어있기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과 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원장의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받는 행복은 일시적,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조계종 11월 16일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한 해 동안 포교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하는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성운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받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만약 받는 것이 없으면 갈애와 갈증을 느끼고 이 미움과 분노가 업의 수레바퀴로 바뀌게 된다. 주는 행복을 통해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 한복순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완도 신흥사 주지 범일 스님, 산정 금수암 주지 대안 스님,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백거 스님, 김상인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더욱 활발한 전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장, 홍성만 포교사단 전문포교사,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환경운동, 사찰음식, 문화재, 세터민 포교 등 포교의 영역도 구체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다"며 "이렇듯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통해 현시대의 삶에 담긴 고통을 해소하고 21세기 한국사회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제로 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포교 대상을 시상하는 오늘 자리는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법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하셨듯, 오늘 모인 불자들이 원력과 성심을 다해 함께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일만, 암도 스님과 종단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관련기사 5면>

"한일 템플스테이, 청소년 교류기회 갖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 13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봉행

한일 양국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힘을 모은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4일 화성 용주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이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제36차 한일 불교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계의 공통문제인 청소년 신도 이탈에 대한 대응과 '일베', '넷우익' 등 양국 청소년 사이에 퍼져있는 극우주의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한일양국 불교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 스님은 "한일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비롯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사찰간 청소년 교류에도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후지타 류조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은 청소년 따돌림과 자살 등을 방지하는데 양국불교계가 힘쓰자고 화답했다. 후지타 류조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은

"세계적으로 종교이탈이 화제가 되는 시기"라며 "청소년기에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따돌림과 자살,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막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 "전임회장인 미야바시 쇼겐 스님의 뜻을 이어 받아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이 단단한 유대 하에 걸음을 맞춰나가자"고 당부했다.

양국 불교계 대표들의 축사에 이어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부회장 홍파 스님의 축원문과 일한불교교류협 부회장 시바타 테츠켄 부회장의 표백문 낭독, 한일불교문화교류협 부회장 춘광 스님, 전일본불교회 카토 세이지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한편,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1월 12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용주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주제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또 교류 확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산지 개발'로 죽어간 생명들을 추모하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승 스님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심(心)정정 국토정정 발원 천도재'를 봉행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천도재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집행위원장 법현), 조계사 등 불교계 단체 및 사찰들이 동참한다.

이와 관련 법승 스님은 11월 17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정정국토정정발원천도재 봉행단'을 발표했다. 법승 스님은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대대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승 스님은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홍보용 등산갑' 5백개를 2차로 제작, 30일 천도재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1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교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 문과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 이 시대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최고의 인재 양성 과정 제1기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박정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외교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민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동국대 안상호박사, 원광대 김민재박사 외

대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모집기간	11월 15일(월) ~ 12월 15일(화)까지	모집인원	40명(지원 우선순위 마감)
일정	1학기 과정, 子月 12월 21일부터 매주 월(月) 18:30 ~ 21:30 / 수강료 22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소정의 절차 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수강료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평생일반